

불규칙용언의 역사적 변천과 제약서열의 변경*

이세창
(숙명여자대학교)

Lee, Sechang. 2005. Chronology of irregular stems and re-ranking of universal constraint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1.2. 337-351.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rgue that it is a better choice to handle the so-called 'p/-irregular stems' in Korean as resulting from a historical stepwise re-ranking of a particular constraint in the framework of the Optimality Theory. In line with much of traditional research on those irregular stems, I adopt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ir current irregularities are triggered by the loss of the underlying segment /β/ in the 15th century. The characteristic alternation between [β] and [w] will be captured by a conception of assimilation to surrounding vowel features. In my diachronic approach this does not require any exceptional statement but turns out to be an automatic consequence of the re-ranking of a particular constraint. An interesting implication of this approach comes from a comparison with '/s/-irregular stems'. Those two types of irregular stems are claimed to have undergone a similar historical process and it will be proposed that the phonologically unpredictable behaviors of the latter can be unified with those of the former. These apparently different two threads are all joined into a unified conception of the interaction and re-ranking of the relevant universal constrai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words: /p/-irregular stems, /s/-irregular stems, major class features, agreement, release features, re-ranking of constraints, Optimality Theory

1. 서론

Chomsky &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이후 SPE로 칭함)로 대표되는 생성음운론이 출범한 이후 음운론 발전의 주된 흐름은 생산적인 음운규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제안과 수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규칙적이었던 음운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성을 잃고 화석화 된 경우는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의 접목을 요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이론 발전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본고는 현대국어의 소위 'ㅂ-불규칙용언'이 지니고 있는 음운론적 불규칙성의 원인을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이를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Prince & Smolensky 1993, 이후 OT로 칭함)의 공시적 구도 내에서 형식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순경음 '병'이 존재하였던 15세기의 국어 자료를 면밀히 고찰하여 당시에 발생하였던 규칙적 음운교체를 OT의 공시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관련된 제약서열의 단순한 변경에 의하여 불규칙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4학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귀중한 의견을 내주시고 중요한 잠재적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활용을 보이게 된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ㅁ-불규칙용언’의 어형변화를 살펴본다 (2절).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거의 연구들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조망해 본다 (3절). 불규칙성에 관련한 분절음들의 자질구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고의 분석에 사용될 보편제약들을 소개한다 (4절). 15세기 중세국어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3단계로 분류하고 특정제약의 단계적 서열변경이 음운론적인 불규칙성의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5절).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분석방식이 여타의 불규칙용언들로 확대적용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6절, 7절).

2. 어형변화

현대국어에는 어간의 자음이 /p/로 끝나는 두 종류의 용언이 있다. 소위 ‘ㅁ-규칙용언’의 전형적인 어형변화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여도 입력형의 /p/를 출력형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자음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대표적인 예들만을 열거하였다.

(1) ‘ㅁ-규칙용언’의 대표적 활용

Indicative /cap + ta/	Stative /cap + a/	Gloss ‘to catch’
↓	↓	
[cap ^h .t’a] ¹	[ca.pa]	
Connective /cap + ko/	Conditional /cap + imjən/	
↓	↓	
[cap ^h .k’o]	[ca.pi.mjən]	

한편, 소위 ‘ㅁ-불규칙용언’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입력형의 /p/가 [w](또는 [u])로 실현되는 음운론적으로는 규칙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게 된다.

(2) ‘ㅁ-불규칙용언’의 대표적 활용

Indicative /təp + ta/	Stative /təp + ə/	Gloss ‘to be hot’
↓	↓	
[təp ^h .t’a]	[tə.wə]	

¹ 국어의 모든 저해음들은 음절말 위치에서 불파음으로 실현되며 (예: [p^h]) 후행하는 인접 자음은 경음화를 겪게 된다 (예: [t’]). 경음화는 불규칙용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Connective /təp + ko/ ↓ [təp̣.k'o]	Conditional /təp + imjən/ ↓ [tə.u.mjən]
---	--

(2)의 Stative에서 볼 수 있는 /p/에서 [w]로의 실현이 국어에서는 규칙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음운교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종류의 용언들을 전통적으로 ‘ㅂ-불규칙용언’이라 명명하게 된 근거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진우 1988; 최명옥 1985; 한영균 1985; Kim-Renaud 1974, 1986 등).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절에서는 ‘ㅂ-불규칙’용언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시적 접근방법만으로는 불규칙용언을 설명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시적 접근방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3.1 공시적 접근방법

음운교체를 보이는 형태소를 분석할 경우에 그것이 항상 단일한 기저형에서 도출되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면 과도하게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고 음운규칙을 정밀하게 기술해 주는 방식들도 시도된 바도 있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음운분석이 실제적 증거를 결여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분석 자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본 소절에서는 과거에 시도되었던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간략히 조망해 보고자 한다.

3.1.1 기저형의 추상화

‘ㅂ-불규칙용언’의 분석에 있어서도 SPE방식에 따라 현대국어의 공시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저형의 어간말에 추상적인 분절음을 설정해야 하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같이 추상적 기저표시를 감수하면서 음운교체의 일반성을 포착하고자 한 과거의 분석들은 다음에 열거된 사례들에서 드러나듯이 모두 표면형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분절음을 기저형에 설정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3) 어간말 기저음소의 설정

	p-불규칙용언	p-규칙용언
a. 김진우(1973, 1988)	w	p
b. 김차균(1971)	뵤(β)	p
c. Cook (1973)	wp	p
d. 이병건(1976)	b	p

그러나 근본적으로 /w/를 [p]로 실현시키는 음운규칙이 현대국어에 존재할 수 없다는 발견으로부터 (3a)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3b)와 (3c) 그리고 (3d)의 경우에는 /β/나 /wp/ 그리고 /b/ 같은 추상적 기저음소를 별개의 음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ㅂ-불규칙용언’에 관한 과거의 공시적 분석들은 국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증할 만한 실체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명옥 1985).

3.1.2 음운규칙 기술의 정밀화

‘ㅂ-불규칙용언’의 어간말에 나타나는 기저음을 표면형과 일치하는 /p/로 설정한 후에 이 기저의 /p/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w]로 약화되거나 탈락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예로 들 수 있다.

(4) 어간말 /p/의 교체와 탈락

a. Kim-Renaud (1974)

$p \rightarrow w / V: ____ \& V$

(A verb stem final /p/ is weakened to [w] in intervocalic position when the preceding vowel is long.)

b. 김수곤(1977)

$p \rightarrow w / (C_0V)_1 \ C \ \left[\begin{array}{c} \text{not } \check{c} \end{array} \right] V ____ \left. \vphantom{\begin{array}{c} \text{not } \check{c} \end{array}} \right] \text{동사어간} + V \text{접미사}$

c. Moon (1982)

$\left[\begin{array}{c} -\text{syllabic} \\ +\text{lab} \\ -\text{nas}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V \left[\begin{array}{c} V \\ +\text{round} \end{array} \right] ____ + V$

(4b)와 (4c)는 (4a)를 기반으로 하여 보완된 것인데 이들 논의의 핵심은 ‘ㅂ-불규칙용언’이 다음과 같이 수의적 교체형을 보인다는 발견에서 출발하였다.

(5) 수의적 교체형 (한영균 1985: 389)

A		B
맵다	~	매웁다
딛다	~	미웁다
굽다	~	고웁다
딛다	~	더웁다
돕다	~	도웁다
흥겹다	~	흥겨웁다
놀랍다	~	놀라웁다
아름답다	~	아름다웁다
탐스럽다	~	탐스러웁다

위의 예들은 표면형에서 ‘Vp-’와 ‘-Vup’의 수의적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Vup’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음운환경에 따라 (4)에서와 같은 규칙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규칙의 정밀화를 통하여 음운현상의 일반화를 포착하고자 한 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이것이 본고에서 앞으로 전개될 기본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 (6) ... 김수곤(1977), Moon(1982)의 제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소위 불규칙 용언이라 불리는 어사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ㅅ’불규칙 용언과 ‘ㅂ’불규칙 용언들은 ‘z > Ø’ ‘β > w’라는 음운변화가 어간말 자음에 영향을 주어 생겨난 것인데, 이들 양자의 제안에는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영균 1985: 391)

결국 추상적 기저형을 허용하거나 음운규칙의 정밀화를 통하여 ‘ㅂ-불규칙용언’을 설명하려는 공시언어학적 접근방식은 그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었다².

3.2 통시적 접근방법

앞 절에서 소개한 불규칙용언의 음운론적 예외성은 순경음 ‘ㅃ’이 존재하였던 후기 중세어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시적 관점에서의 설명이 가능해 진다. 다음에 제시된 인용문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7) ... 국어사는 p-, s-변칙동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간행된 문헌에 의하면, 1450년대까지의 국어의 자음체계는 p, p^h, p’와 β가 기저음소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현재의 p-변칙동사들은 어간말 기저음소 β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동사는, ..., 어미의 모음과 자음 앞에서 β-p의 어간 말음소의 교체를 보이는 정칙동사였다... 그러던 것이 1450년대 이후에 β가 w로 변하면서 기저음소 β는 소멸되고 국어의 자음체계는 p, ph, p’만이 기저음소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어간말 기저음소 β를 가지고 있던 동사들은 현재의 p-변칙동사들과 동일한 어간의 교체를 보였다... (최명옥 1985: 162-163)³

다음의 예들은 중세국어에서 ‘ㅂ(p)~ㅃ(β)’의 전형적인 교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² 추상적 기저형을 사용한 통시적 접근방식으로는 Ramsey(1978)를 들 수 있을 것이다.

³ [β]는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음절두음의 위치에서 대립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두에서의 최소대립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β’를 기저음소로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곧 [β]가 음소가 아닌 이음일 수 있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음절두음에서의 대립은 곧 어두에서의 대립을 함축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에 임하도록 하겠다.

(8) 중세국어에 나타난 ‘ㅁ’의 교체현상

Connective	Stative	Gloss
돕고	도ㅁ	‘to help’
덥고	더ㅁ	‘to be hot’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어간의 성조에 관계 없이 해당 용언이 ‘ㅁ~ㅁ’의 교체를 보이고 있다. 한영균(1985: 380)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에 이미 ‘[β]~[w]’의 수의적인 교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의적인 교체는 기저음소가 /β/인 경우에 한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현상에 관련된 음운규칙을 일단 다음과 같이 형식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기저음소 /β/의 음성적 실현 (한영균 1985: 381)

- a. 규칙1: /β/ → [p] / _____ C (필수적)
- b. 규칙2: /β/ → [w] / _____ V (수의적)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르게 되면 /β/가 음소로서의 자격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9)에 제시된 두 개의 규칙은 서로를 이어주던 고리를 상실하게 되어 [p]와 [w]가 음운론적으로 상호 무관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⁴.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현대국어의 ‘ㅁ-불규칙용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4. 제안

앞서 (9)에 제시되었던 음운규칙들의 음성적 동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9a)의 ‘규칙1’은 음절말에 위치하게 된 마찰음 /β/가 폐쇄음 [p]로 실현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찰음이 가지고 있던 지속성자질(즉, [+continuant])을 음절말 위치에서 상실하게 된 결과

⁴ 오스트랄리아의 북부 퀸즈랜드(Queensland)의 Uradhi어는 현대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p]가 [w]로 바뀌는 음변화를 겪게 되었다.

(i) Uradhi어의 음변화 (Crowley 1997: 36)

*pinta	→	winta	‘arm’
*pilu	→	wilu	‘hip’
*pata	→	wata	‘bite’

또한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의 Palauan어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ii) Palauan어의 음변화 (Crowley 1997: 36)

*paqu	→	waʔ	‘leg’
*paqit	→	waʔəð	‘bitter’
*qatəp	→	ʔaðow	‘roof’

이와 같이 계통상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언어들 사이에서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음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음변화 패턴은 국어의 ‘ㅁ-불규칙용언’이 보여주는 [p]와 [w]의 교체현상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법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제약이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0) *RELEASE]_σ

Every obstruent in coda must be unreleased⁵

결국 /β/가 음절말음의 위치에서 [p]로 실현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제약서열에 의하여 촉발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11) *RELEASE]_σ » IDENT-IO[cont]

(11)에 제시된 서열관계는 입력형에 주어진 [continuant]의 자질가를 위반해서라도 출력형에서는 반드시 음절말음이 해제자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9b)의 ‘규칙2’가 담고있는 내용을 제약들 간의 관계로 표현하여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하여 마찰음 /β/가 음절초 위치에서 이동음 [w]로 실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β’와 ‘w’ 두 자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음성적 차이부터 규명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을 구성하는 주요 자질들의 목록을 다음의 도표에서 비교해 놓았다.

(12) ‘β’와 ‘w’의 자질가 비교

Distinctive Features	β	w
labial	+	+
nasal	-	-
consonantal	+	-
sonorant	-	+
continuant	+	+
syllabic	-	-
coronal	-	-
spread glottis	-	-
constricted glottis	-	-
...

(12)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β’와 ‘w’의 구성 자질들을 비교해 보면 자음성(consonantal)과 공명성(sonorant)에서만 자질가의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자질가들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9b)에서 보여주는 /β/에서 [w]로의 변화는 전형적인 저해음의 대분류자질(major class features)로부터 모음을 특징 지워주는 대분류자질로 자질값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도표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⁶.

⁵ 국어의 경우과 격음이 음절말에서 각각 [+spread glottis]와 [+constricted glottis]의 자질을 상실하는 중화현상도 동일한 제약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⁶ 모음과 이동음(glide)은 각각 [+syllabic]과 [-syllabic]의 자질명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자질가는 일치한다. 이 점을 제외하면 모음과 이동음은 자질가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13) 대분류자질 (SPE)

	[sonorant]	[consonantal]
vowels	+	-
glides	+	-
obstruents	-	+
nasals	+	+
liquids	+	+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음에 있어서 공명성에 관한 무표적인 값은 [+sonorant]이며 자음성에 관한 무표적인 값은 [-consonantal]라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의미 있게 고려한다면 모음 사이에서 /β/가 [w]로 실현되는 이유는 ‘β’가 이웃하는 모음들의 영향을 받아 모음성(vocality)을 띠게 되는 일종의 동화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음들 사이에 위치한 자음이 약화되는 것은 대단히 무표적인 언어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OT의 유표성제약으로 포착할 수 있다. 만약에 모음간 ‘β’를 금지하는 유표성제약이 존재한다면, ‘β’를 ‘w’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제약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분류자질과 관련된 두 개의 자질들(즉, [consonantal]과 [sonorant])에 한해서만 자질을 바꾸어 줌으로써 이러한 유표성제약의 위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충실성제약을 최소한으로 위반하면서 상위의 유표성제약을 만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유표성제약을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14) AGREE[cons/son]

Obstruents must agree in major class features with surrounding vowels

만약 AGREE[cons/son]가 IDENT-IO[cons/son]를 지배하게 되면 (즉, AGREE[cons/son] » IDENT-IO[cons/son]) 대분류자질들의 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반대의 서열(즉, IDENT-IO[cons/son] » AGREE[cons/son])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입력형의 ‘β’를 출력형에서 모음 사이에 나타나면 본래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후자의 제약서열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5) IDENT-IO[cons/son] » AGREE[cons/son]

(11)과 (15)에 제시된 두 개의 제약서열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IDENT-IO[cont]와 IDENT-IO[cons/son] 사이의 서열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 절의 분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5. 분석

본 절의 분석에서는 앞서 3절에서 소개된 ‘ㄴ-불규칙용언’에 관한 전통적인 통시적 연구결과를 존중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15세기에는 규

칙적인 활용을 보였던 ‘ㅁ-불규칙용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불규칙한 활용을 보이게 되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현대국어의 패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OT의 이론적 구도 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ㅁ-불규칙용언’의 역사적 변천은 다음에 제시되는 총 3개의 공시언어학적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절에서 제시될 제약서열 상에서 AGREE[cons/son]의 위치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주시하며 그 때마다 최적형이 달라지면서 최종적으로는 현대국어의 문법에 도달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5.1 제 1단계

‘β’가 기저음소로서 존재하였던 15세기 당시에는 다음의 (16)과 같은 제약서열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 /təβ + ə/ → [tə.βə] ‘Stative’

Input: /təβ + ə/	*RELEASE] _σ	IDENT-IO [cont]	IDENT-IO [cons/son]	AGREE [cons/son]
a. σ σ / / [tə.βə]				*
b. σ σ / / [tə.pə]		*!		*
c. σ σ / / [tə.wə]			*!	

(16)번 평가표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세 후보는 모두 모음 사이에 위치한 /β/를 출력형에서 음절두음으로 실현시켰기 때문에 *RELEASE]_σ를 충족시키고 있다. 입력형에 존재하는 /β/를 출력형에서 [p]로 실현시킨 (16b)는 그 과정에서 [+continuant]를 [-continuant]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IDENT-IO[cont]를 위반하게 되어 가장 먼저 경쟁에서 제외된다⁷. /β/가 [w]로 바뀐 (16c)는 IDENT-IO[cons/son]를 위반하게 되므로 벌점을 받게 되므로 입력형에 가장 충실한 (16a)가 최적형으로 결정된다.

동일한 제약서열이 음절말에 나타나는 [p]의 경우도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음의 평가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⁷ 평가표에 나타나지 않은 후보들 중에서 [tə.bə] 역시 (16b)와 동일한 벌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경쟁에서 제외될 것이다.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루게 될 유사한 평가표에서는 /β/가 [b]로 실현된 후보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다.

(17) /təβ + ko/ → [təp.ko] ‘Connective’

Input: /təβ + ko/	*RELEASE] _σ	IDENT-IO [cont]	IDENT-IO [cons/son]	AGREE [cons/son]
a. $\sigma \quad \sigma$ / \ / [təβ.ko]	*!			
b. $\sigma \quad \sigma$ / \ / [təp.ko]		*		
c. $\sigma \quad \sigma$ / \ / [təw.ko]	*!		*	

(17a)와 (17c)는 음절말음의 위치에 [+continuant]의 자질을 갖는 [β]와 [w]를 각각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두 후보들은 *RELEASE]_σ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며 하위 제약들의 작용에 관계없이 (17b)가 실제의 출력형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5.2 제 2단계

중세국어 초기의 제약서열은 (16)번과 (17)번 평가표에서처럼 AGREE[cons/son]가 서열의 최하위에 위치하였다. 그 이후에 AGREE[cons/son]의 서열이 한 단계 상승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음운교체가 탄생하게 된다. 다음에 주어진 평가표에서는 AGREE[cons/son]가 IDENT-IO[cons/son]의 바로 위로 서열이 한 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16)번 분석과는 다른 후보가 최적의 출력형으로 결정되게 된다.

(18) /təβ + ə/ → [tə.wə] ‘Stative’

Input: /təβ + ə/	*RELEASE] _σ	IDENT-IO [cont]	AGREE [cons/son]	IDENT-IO [cons/son]
a. $\sigma \quad \sigma$ / \ / [tə.βə]			*!	
b. $\sigma \quad \sigma$ / \ / [tə.pə]		*!	*	
c. $\sigma \quad \sigma$ / \ / [tə.wə]				*

입력형의 /β/를 [p]로 실현시킨 (18b)는 IDENT-IO[cont]의 작용으로 인하여 벌점을 받아 경쟁에서 제외된다. 남아 있는 두 개의 후보 (18a)와 (18c)는 이제 AGREE[cons/son]에 의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입력형에 존재하던 /β/의 대분류자질들을 인접한 모음에 동화시킨 (18c)가 최종경쟁

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AGREE[cons/son]의 서열상승으로 말미암아 입력형 /β/로부터 출력형 [w]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β]와 [w]의 수의적인 교체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 1단계에서 제 2단계로의 이행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된 두 개의 제약들(즉, IDENT [cons/son]와 AGREE[cons/son])의 서열이 확정되지 않았던 과도기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19) 중세국어 과도기의 제약서열

- a. *RELEASE]_σ » IDENT[cont] » AGREE[cons/son]
또는
b. *RELEASE]_σ » IDENT[cont] » AGREE[cons/son] » IDENT [cons/son]

즉, 중세국어의 어느 시기 동안에는 두 개의 서열제약(즉, (19a) 또는 (19b))이 모두 가능하였으며 이것이 (16)과 (18)에서 각각 [β]와 [w]의 수의적인 교체현상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GREE[cons/son]의 상승 이후에 정립된 서열에서도 역시 (17)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의 (20)번 평가표는 (17)에서와 동일한 입력형을 다루고 있지만 제약서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최적형을 선정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 /təp + ko/ → [təp.ko]

Input: /təp + ko/	*RELEASE] _σ	IDENT-IO [cont]	AGREE [cons/son]	IDENT-IO [cons/son]
a. σ σ / \ / [təβ.ko]	*!	*		
b. σ σ / \ / [təp.ko]				
c. σ σ / \ / [təw.ko]	*!	*		*

(20a)와 (20c)의 경우에 음절말음에 위치한 [β]와 [w]가 [+continuant]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LEASE]_σ를 위반한다. *RELEASE]_σ를 위반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인 (20b)가 최적형으로 결정된다.

5.3 제 3단계

중세국어의 /β/가 음소목록에서 사라지게 된 이후에 현대국어에 이르러 AGREE[cons/son]의 서열이 다시 한 번 상승하게 된다. 본 소절에 제시된 두 개의 평가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β/는 입력형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대국어의 예에서는 /p/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21) 현대국어: /təp + ə/ → [tə.wə] ‘Stative’

Input: /təp + ə/	*RELEASE] _σ	AGREE [cons/son]	IDENT-IO [cont]	IDENT-IO [cons/son]
a. σ σ / / [tə.βə]		*!	*	
b. σ σ / / [tə.pə]		*!		
c. σ σ / / [tə.wə]			*	*

출력형의 음절두음 자리에 각각 [β]와 [p]를 가지고 있는 (21a)와 (21b)는 모음 사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대분류자질들에 동화되지 않고 저해음의 대분류자질들(즉, [+consonantal]과 [-sonorant])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GREE[cons/son]를 위반하게 된다. 결국 (21c)가 최적형으로 판정되는데 제약서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18)번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22)번 평가표를 고려해 보도록 하자. 현대국어의 경우이므로 (21)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입력형에는 /p/가 설정되어 있다.

(22) 현대국어: /təp + ko/ → [təp.ko] ‘Connective’

Input: /təp + ko/	*RELEASE] _σ	AGREE [cons/son]	IDENT-IO [cont]	IDENT-IO [cons/son]
a. σ σ / \ / [təβ.ko]	*!			
b. σ σ / \ / [təp.ko]			*	
c. σ σ / \ / [təw.ko]	*!			*

앞서 (17)에서 AGREE[cons/son]의 서열이 (20)에서 한 단계 상승하고 이것이 (22)에서 또 다시 한 단계 상승하였지만 최적형을 선별해 내는 평가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β/가 중세국어의 음소목록에서 사라진 후에도 음절말 위치에서는 *RELEASE]_σ의 작용에 의하여 여전히 [p]가 나타나게 된 (22b)가 최적형으로 결정된다.

6.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현대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s-불규칙용언’이 생겨나게 된 원인도 본고의

분석방식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23) ‘ㅅ-불규칙용언’의 활용

Indicative /cis + ta/	Stative /cis + ə/	Gloss ‘to build’
↓	↓	
[cit.ta]	[ci.ə]	
Connective /cis + ko/	Conditional /cis + imjən/	
↓	↓	
[cit ^h .k'o]	[ci.i.mjən]	

(23)의 Stative에서는 입력형의 이간말 자음 /s/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탈락하는 예외적인 행동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통시적인 접근방식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z]의 음가를 갖는 중세국어의 받침음 ‘Δ’이 음소목록에서 사라짐으로 인하여 현대국어에서 ‘ㅅ-불규칙용언’이 생겨나게 된 것도 AGREE [cons/son]가 작용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의 평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24) 현대국어: /cis + ə/ → [ci.ə]

Input: /cis + ə/	*RELEASE] _σ	AGREE [cons/son]	IDENT-IO [cont/cons/son]	MAX-IO [segment]
a. σ σ / / [ci. sə]		*!		
b. σ σ / [ci. ə]				*

어간의 입력형에 존재하는 /s/는 출력형에서 모음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AGREE[cons/son]를 충족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입력형에 충실한 (24a)는 이 제약을 위반하게 되어 경쟁에서 일단 탈락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력형 /s/의 대분류자질들(즉, [+consonantal]과 [-sonorant])을 모음의 대분류자질들(즉, [-consonantal, +sonorant])에 동화시키면 분절음으로서서는 불가능한 자질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간말 /s/를 출력형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최선책으로 선택되어 (24b)가 최적형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24)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7. 결론

‘ㅅ-불규칙용언’의 음운론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현대국어에 대한 공식 언어학적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

다. 본고에서는 3단계의 공시적 단계가 연결된 통시적 관점에서 불규칙 용언을 조망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ㅂ-불규칙 용언’에 관한 한 15세기 경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요약된 변천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현대국어의 문법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제약서열의 변천과정

- a. *RELEASE]₀»IDENT[cont] » IDENT [cons/son] » AGREE[cons/son]
 b. *RELEASE]₀»IDENT[cont] » AGREE[cons/son] » IDENT [cons/son]
 c. *RELEASE]₀»AGREE[cons/son] » IDENT[cont] » IDENT [cons/son]

이러한 분석방식은 유사한 유형에 속하는 ‘ㅅ-불규칙용언’의 분석에도 확장해 볼 수 있으며 기타의 불규칙용언들로 분석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ㅂ-규칙용언’은 AGREE[cons/son]가 제약서열 상에서 상승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의 차이는 특정제약의 서열상승과정을 겪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시도된 분석은 ‘ㅂ-불규칙용언’과 ‘ㅅ-불규칙용언’에 국한된 것이며 규칙용언과의 통합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수곤. 1977. ㅂ-변칙동사류의 음운론적 의의. *언어* 2.2: 1-16.
 김완진. 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김진우. 1988.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Sojourns in Language* II, Seoul: Tower Press.
 김차균. 1971. 변칙용언연구. *한글* 147.
 이병진. 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서울: 일지사.
 최명옥. 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p-, s-, t-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최명옥. 1988.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lɛ-, lə-, ɛ(jə)-, h-변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한영균. 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10.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CLEMENTS, GEORGE N. 2000. In defense of serialism, *The Linguistic Review* 17: 181-197.
 COOK, EUNG-DO. 1973. Double-consonant base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2: 264-273.
 CROWLEY, TERRY. 1997.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GOLSTON, CHRIS. 1991. Minimal word, minimal affix, *NELS* 21.
- HAYES, BRUCE.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raic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20: 253-306.
- HYMAN, LARRY M. 1985. *A Theory of Phonological Weight*. Dordrecht: Foris.
- JUN, JONGHO. 1994. Metrical weight consistency in Korean partial reduplication. *Phonology* 11: 69-88.
- KIM-RENAUD, YOUNG-KEY. 1974.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_____. 1986.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Hanshin Publishing Co.: Seoul.
- KIM, JIN-WOO. 1973. Regularity of the so-called irregular predicates in Korean, in Kisseberth (ed.) *Studies in Generative Phonology*. Edmonton: Linguistic Research.
- LOMBARDI, LINDA. 1999. Positional faithfulness and voicing assimilation in optimality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267-302.
- MARTIN, SAMUEL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Tokyo: Charles E. Tuttle Co.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86. Prosodic morpholog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Brandeis University.
- MCCARTHY, JOHN. 1998. Sympathy and phonological opacity, ROA-252.
- _____. 2002. *A Thematic Guide to Optimality Theory*. New York: Cambridge Press.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linguistics depart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ROA-60.
- MOON, KYUNG-HWAN. 1982. Korean p-irregular verbs revisited. *Linguistic Analysis* 13.1.
- PRINCE, ALAN &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RAMSEY, SAMUEL ROBERT.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Seoul: Tower Press.

Sechang Lee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E-mail: sechangl@sookmyung.ac.kr

Received: July 15, 2005
Accepted: August 28, 2005